제352회국회
(임시회)

국 방 위 원 회 회 의 록

제 2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7년7월5일(수)

장 소 국방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긴급현안보고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

상정된 안건

1. 긴급현안보고 ····· 2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 9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 9
1. 긴급현안보고(계속) ····· 10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09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영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2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그럼 오늘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어제 7월 4일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이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은 어제 이례적인 특별중대보도를 통해서 미사일이 최고 2802㎞까지 상승해 933㎞를 비행했다고 전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국방부로부터 보고를 상세히 들어 봐야 알겠지만 북한의 주장이 맞다면 SLBM, IRBM에 이어서 ICBM에 이르기까지 북한은 핵이라는 비대칭전력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 전력체계를 갖추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은 올해 들어서만 열두 번째, 새 정부 출범 이후 채 두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벌써 여섯 번째 미사일 도발이며, 특히 한미 정상회담이 끝난 지 불과 사흘 만에 감행된 도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하는 동안 대한민국은 무엇을 했으며 대체 국방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대한민국 전체가 안보 불감증, 안보 무능에 빠져 있지는 않은지 자괴감이 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새 정부의 남북대화 정책 기조가 과연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도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북한의 의도는 매우 분명하고도 일관됩니다. 외부로부터의 압박이든 대화든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핵과 ICBM을 갖겠다는 마이 웨이 전략을 계속해서 고수하고 있습니다. 추가 미사일 실험과 6차 핵실험 등 ICBM의 실전 배치에 필요한 도발들을 계속 감행할 것입니다. 당장 눈앞에서 핵과 미사일로 폭력을 휘두르는 북한을 상대로 우리가 너무도 순진한 접근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국회 차원에서 점검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방위원회도 국가안보에 대한 책무로부

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현안보고, 오늘이 처음이 아닙니다. 국방부로부터 북한의 미사일 발사 보고를 받고 북한의 기술 진전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한결같은 국방부의 보고에 우리는 진위를 논하고 질타하다가 상임위가 그냥 끝나지는 않았는지 위원장으로서 반성도 해봅니다.

오늘 긴급현안보고는 북한의 ICBM 실험의 실체에 대해서 객관적인 분석과 냉철한 평가뿐만 아니라 정부의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셔서 오늘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여야 구분 없이 북한의 핵전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허심탄회하게 논의를 이어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어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보고를 받은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

1. 긴급현안보고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09시07분)

○위원장 김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긴급현안보고를 상정합니다.

국방부장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존경하는 김영우 국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도발 자제를 촉구한 지 며칠 지나지도 않은 어제 오전 9시 40분경 북한은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였습니다.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기대하는 국제사회에 대한 정면 도전행위입니다. 북한 정권이 이와 같이 무모한 도발을 계속 한다면 우리와 국제사회로부터 더욱더 단호하고 강력한 대응과 제재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군은 즉각 위기관리기구를 소집하여 상황을 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미 간 긴밀한 공조하에 북한 동향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굳건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오늘 현안보고는 장경수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우 장경수 정책실장직무대리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방부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경수 육군소장입니다.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별도로 나누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발사 개요입니다.

북한은 어제 아침 09시 40분경 평안북도 방현 일대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하였으며 15시 30분 특별중대보도를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사일의 고도 및 비행거리, 속도, 비행시간, 단 분리 등을 고려 시에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되며, 지난 5월 14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KN-17을 2단체로 개량한 것으로 잠정 평가하고 있습니다.

고정형 발사대로 발사 및 고난도 기술을 필요로 하는 재진입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 시에 ICBM의 개발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됩니다.

2쪽입니다.

북한은 어제 화성-14형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에 성공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현재 풍계리 핵실험장의 2·3번 갱도는 언제든지 핵실험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접적지·해역에서의 도발 징후 등 기타 특이 동향은 식별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의도는 자체 ICBM 개발 일정에 따른 장거리미사일 능력 확보, 한미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 대한 반

발 및 미 독립기념일 계기 무력시위, 대화국면 대비 대미·대남 주도권 확보 및 전향적인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가되며, 향후 국면 전환에 유리한 상황을 조성하기 위한 벼랑끝전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향후 북한은 미국 주도의 대북제재 및 압박 강화와 관련하여 비난과 위협을 지속하는 가운데 ICBM 성공을 주장하면서 김정은 우상화 및 경축 분위기를 조성하고 탄도미사일 추가 발사, 6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을 시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군사적·비군사적 조치를 이행하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우리 군과 한미동맹의 능력 및 태세 강화에 중점을 두고 조치 중에 있습니다.

먼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비하여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 경계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조치부호를 선별적으로 격상시켰고 현 정보감시태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정보감시자산 및 운용시간을 증가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필요 시 미 측 ISR 자산의 추가 운용을 협조하겠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국방부와 합참은 통합 위기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장관께서는 국가안전보장회의에 참석하여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또한 북한 도발 관련 군사적·비군사적 조치의 일환으로 정부 성명과 병행하여 합참 차원의 입장을 발표하였고 오늘 아침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시행하였으며 앞으로도 한미동맹의 강력한 경고메시지 발신을 지속하겠습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상쇄할 수 있는 우리 군과 동맹의 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한 가운데 도발 시에는 단호히 대응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의 능력과 태세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경대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대수 위원 장관님, 장관님 이러시다가 다음 북한이 핵실험 할 때 그때도 또 장관님께서 와서 보고하시는 것 아닌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우리 장관님께서 핵·미사일, 북한 사태와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보고를 하실지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여섯 차례 미사일 실험을 했다고 그러는데 오늘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노동신문에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 방어에 대해서 조롱하는 글귀가 난 게 나왔습니다. '제 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이 그 무슨 군사적 대응을 떠들어대고 있는 것은 가소롭기 그지없다' 이렇게 해 놨는데요.

오늘 한미연합 무력시위, 미사일 훈련을 통한 무력시위를 했다는데 그 미사일은 무슨 미사일인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 측의 에이타킴스하고 우리 현무가 참여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게 그러니까 공격용 자산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그래도 최소한의 방어용 무기는 사드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사드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중에서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요격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조건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그러는데 그러면 북한이 다음 또 ICBM 발사나 핵실험이 금년 중에 예상된다고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사드 배치 언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장관님께서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사드 배치는 현재도 5월 1일부터 최소 운용능력에 대한 작전 운용이 되고 있고 나머지 능력을 작전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그동안에 배치 결정 경과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절차적인 문제에 관한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환경평가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될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켜봐야 되겠고 그 과정에서도 특별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북한 상황과 관련한 상황이 있으면 정부 나름대로 적지 않은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북한이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인 핵동결 선조치 후에 대화 과정을 통해서 핵폐기로 가겠다라는 2단계 접근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지금 명백히 북한은 핵동결이라든지 핵폐기에 관해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 불응한다 이와 같은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힌 것이고 그 일환으로 또 ICBM 발사도 어제 한 것 같은데 오늘 보고서에는 ICBM 성공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는 ICBM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 국무부가 ICBM이라고……

○경대수 위원 그래서 그렇다면 핵동결 후에 대화를 통해서 핵폐기로 가겠다는 정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 아니냐 그 말씀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현재 우리 정부나 또 최근 한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그 결과로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현재 시작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볼 문제라고 봅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북한이 넘어서는 안 될 금지선, 레드라인이라 그러나요, 그게 우리 정부 입장은 뭐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언론에서 레드라인을 말하고 있습니다마는 한국 정부나 미국 정부나 구체적으로 이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정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지금 ICBM이라고 미국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국무부에서 발표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게 사실이라면 그것이 하와이까지 가든 미국 본토까지 가든 우리 정부,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땅에 떨어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지금 북한의 미사일이. ICBM이 굳이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레드라인을 정해 놓고 결정하는 것은 미국의 기준으로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그것보다 더 단거리미사일이든 또 아니면 잠수함 SLBM이든 이런 것으로 우리 대한민국 영토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사드가 절대적으로 우선 시급한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는데 장관님 견해는 뭡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ICBM은 우리의 사거리를 훨씬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에 탄착될 그러한 적의 미사일에 대한 대응능력을 갖추는 것이 매우 시급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주국방을 외치고 있고 전작권 조기 환수를 얘기하고 있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은 미국 본토에 ICBM이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를 가지고 대북정책이 왔다 갔다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보기에는. 대한민국 영토에 북한 미사일이 떨어지느냐, 핵공격이 가능하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와 같은 선은 이미 넘었다, 레드라인은, 이와 같은 기준에서 지금 대북정책을 펼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지요. 장관님 어떠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북정책은 국방부 차원을 넘어서서 결정이 다른 여러 가지 요소가 되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방부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적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대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경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관께서는 소신을 가지고 확실하게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정부 나름대로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겠나' 완전히 남의 얘기하듯이 하세요? 아직까지는 국방부장관이시잖아요. 그렇게 사드 배치가 중요하다고 얼마나 여러 차례 이 자리에서 얘기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는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현재의 계획에서 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입장을 물으셨기 때문에 그 입장의 변화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그러니까 제 말씀은 장관님께서도 현재 정부십니다. 정부 자체예요. 그런데 '판단과 조치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남의 얘기하듯이 하니까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다음은 존경하는 정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석 위원 한민구 장관님, 위원장 지적하신

대로 장관직, 매우 중요한 국방부장관의 소임을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북한의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 더 이상 뻥으로만 인식할 수가 없게 되었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현존하는 매우 실체적인 위협이다라는 인식 이것이 정부 내에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거듭되는 핵·미사일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는 안보 불감이 만연되어 있잖아요. 당장 우리 머리 위에 핵과 미사일을 이고 살고 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화들짝 놀라서 말이지요 그 나라들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가고 여론이 들끓고 말이지. 우리처럼 태평성대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이것은 정부의 태도에도 기인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정부의 대응 지금까지 성명대응만 하고 말로만 나라 지키는 시늉을 하니까 국민들도 긴장하지 않아요.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이러다가 한번 호되게 당하면 그 사후약방문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부와 군당국에 말로만 단호한 대응이 아니라 실제적인 단호한 대응을 보여 줘야 된다. 오늘 아침에 현무탄도미사일 군사훈련을 오랜만에 했지만 나는 진작부터 이런 대응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관님? 제 짧은 소견으로는 확고부동한 대북 군사억지력을 키워서 니네들보다 우리가 확고한 우위에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돼요. 까불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의지도 없다, 이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캠페인 때 핵추진잠수함 도입하겠다고 공약했지요? 두 달 동안 그 얘기 한마디도 꺼낸 것 못 봤어요. 아니, 추경, 추경 하면서 그런 게 국방부에서 나와야 될 것 아니냔 말이에요, 도대체. 이게 말로만 나라 지키는 나라 아니냐, 이 정부가 말이야.

사드 연내배치 가능합니까, 장관님? 제가 볼 때 연내배치 어려워요. 내가 줌월트 한반도 배치 이것도 한번 서면으로 물어봤어요. 미국 공식요구가 없었다고 스스로 선을 긋고 있어요, 국방부는. 핵추진잠수함 공약 아무, 한마디도 얘기 없었지요. 송영무 국방부장관후보자라는 양반은 사드 배치의 국회비준 동의여부에 대해서 답변조차 못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북한이 중대발표를 한 3시 30분경에 뭐 했어요? 장관들 임명장 태연하게 수여하는 세리머니가 나왔습니다. 좀 긴급하게 NSC 소집하고 장관 임명장 수여하는 것 늦추면 안 돼요? 이런 식의 말이지……

ICBM 진위 여부는 대기권 재진입 여부 이것 언제쯤 확인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ICBM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 기술적 판단은 여러 가지 지표를 가지고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진기관의 기술, 단 분리 기술, 재진입 기술, 유도조정 기술 또 시험발사의 성공률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재진입 기술은 현재까지 저희들이 판단한 바 아마 시간이 지나도 이것은 성공했다고 분석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앞으로 단호한 대응, 성명대응 말고 실체적인 단호한 대응으로 할 수 있는 우리 툴이 뭐가 있어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께서 국방부나 군 또는 정부가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 대해서 단호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뼈아프게 새겨들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전술적 도발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면 저희들이 북한에 대해서 확실한 응징의지를 가지고 있고 그것을 보여 줬고 2015년도 8월 초에 있었던 지뢰도발과 포격도발에 대한 대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전술적 수준의 도발은 억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전략적 도발은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비핵화 정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군사적 수단으로 대응하는 것은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한미연합 방위태세의 차원에서 맞춤형 억제전략이라든지 미사일 대응작전이나 이런 것들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대응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위원 지금 여당에서 추경안을 내놓고 협상을 하고 있는데 국방부에서는 이번 추경에 배정할 항목이 전혀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금번 추경은 일자리 창출에 중점을 두고 했기 때문에……

○정진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지금의 이 안보상황이 매우 긴박한 상황인데, 또 대통령의 캠페인 중에도 안보 관련 공약이 있었잖아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핵추진잠

수함 도입이라든가 이런 것 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들인데 그런 것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핵추진잠수함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면 그것은 여러 가지 관련 절차가 또 관련 당사국과의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산에 그것을 태우거나 이렇게 하기에는 제한이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정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진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표 위원 장관님, 오늘 아침에 북한이 '화성-14 발사를 통해서 미사일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 그리고 단 분리 기술을 성공적으로 시험했다' 그리고 '대형중량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ICBM이 제작됐다' 이렇게 북한에서 발표한 내용 보고받으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이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 국방부나 한미 간에 북한이 주장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보고에서 '금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ICBM급 사거리의 신형 탄도미사일로 평가한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방금 정진석 위원님 답변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ICBM이다라고 할 때는 사거리 또는 재진입 또 유도조정, 단 분리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다 성공을 해야 ICBM으로서의 군사적 가치가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거리는 한 7000~8000㎞ 정도 이렇게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평가를 했는데 나머지, 북한은 주장했습니다마는 재진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확인된 바가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김진표 위원 북한이 오늘 아침 발표하면서 '재돌입 시 전투부에 작용하는 수천 도 고온과 가혹한 과부하 및 진동조건에서도 전투부 첨두 내부 온도는 25~45℃ 범위에서 안전하게 유지되고 핵탄두 폭발 조종장치는 정상 동작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체공시간이, 발사해서 목표지점에 떨어지는 전체 시간이 얼마나 걸렸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게 북한 발표로 39분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39분 사이에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재진입해서 목표지점에, 933㎞ 거리를 비행하는데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대기권 안으로 들어와서 동해상에 착륙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 기술적으로 가능한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이제……

○김진표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포인트는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것이 39분 사이에 933㎞를 날아가면서 기술적으로 점검해 볼 때 확인할 수 있는 거냐 이거지요, 가능한 거냐 이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것은 실제 이번에 고도가 한 2800㎞까지 올라갔다 내려 왔으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러면 대기권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거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다시 들어온 것입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 북한의 주장을 부인할 수 있는 것은 없구만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비행은 했는데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주로 날아갔다가 다시 대기권으로 재진입해서 탄착한 그 탄두부가 소위 탄두부로서의 군사적 성능을 발휘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제가 부연답변을 드리면 북한이 2016년 3월 15일 날 소위 탄두부의 재진입 환경시험이라는 것을 성공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국방위에도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고 또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렇게 대기권에 재진입할 때는 배기가스에 의한 재진입 탄두부의 마모상태가 어느 정도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특히 ICBM 같은 경우에는 최고 속도가 마하 21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이 대기권 재진입할 때는 열과 압력이 굉장히 높습니다. 열 같은 경우는 7000℃가 넘는 수준의 열에 견딜 수 있었고 또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북한이 보여 준 것은 기계적 상마시험 정도, 열 온도가 1600~1700℃ 정도의 온도를 견딜 수 있는 것을 보여 주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김진표 위원 그러면 이번에 북한의 주장을, 우리가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기술적 방법이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방법은 좀 제한되고요, 다만 북한

이 그것을 국제사회에 입증을 하려면 최소한 7000~8000℃의 열에 견딜 수 있는 그러한 탄두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 주든지 하는 것이 하나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이 될 것이고 저희들은 그런 것이 아직은 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김진표 위원 오늘 보고 자료 3페이지에 보면 북한 도발과 관련해서 우리 쪽의 군사적 조치로 한미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오늘 아침 7시에 했다 그랬는데 이 무력시위가 아까 현무하고 또 뭐라고 그러셨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 측이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에이타킴스라는 것이고요.

○김진표 위원 그것을 발사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발사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현무하고 미사일 발사에 관해서는 우리가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정확히 성공했습니다.

○김진표 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까지 북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대비한 것은 소위 3축이라고 하는 킬체인과 KAMD 그리고 사드 이런 방어전략, 방어무기를 가지고 준비해 왔는데 아직까지 이것이 완비되려면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김진표 위원 그런데 지금 북의 ICBM 성공을 사실대로 믿어 준다고 그래도 ICBM으로 인해서 한반도의 위험이 그 ICBM 때문에 증가하는 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북한이 소위 미국 본토까지 이르는 미사일 공격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군사·외교적으로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고 평가받고 모든 협상에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겠다 이런 전략적 의미를 갖는 것으로 평가해야 되지 않나요? 구체적으로 ICBM을 가지고 우리 한반도를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ICBM은 수천 ㎞ 떨어진 상대국을 공격하기 위한 무기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은 넘어서는 수준의 무기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무기체계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외교적인, 국제적인 또 전략적인 차원에서의 우리 한국에 대한 어떤 위협을 가중시키는 그런 측면은 있겠다고 봅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진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답변한 내용 한두 개 확인하고 군 사안에 대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레드라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걸 아까 말씀하실 때는 없다고, 확실한 레드라인을 안 갖고 있다고 그랬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가 이것이 레드라인이다라고 확정해서 가지고 있지 않다……

○백승주 위원 왜냐하면 이 문제가 지난 4일에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만났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레드라인에 대한 언급을 하셨어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때는 한미가 어떻게 할지 알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장관님은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안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둘째 질문 좀……

북한이 어제 3시 반에 밝혔는데 이 3시 반이 평양표준시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평양시로는 15시, 우리 시간으로 15시 30분입니다.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평양시는…… 북한에서는 표준시로 밝혔는데 그 발표 내용하고 우리 정보당국이 분석한 내용이 상당 부분 일치합니까,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 군과 관련 정보당국은 북한이 ICBM을 개발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번이 사거리의 능력을 보여 주는 그런 시험이다……

○백승주 위원 그런데 발표 내용이 대체로 우리 정부가 분석한 것과 기술적으로 좀 많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기술적으로는 차이가 있다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발표 내용하고, 우리 정부가 볼 때는 아직은 ICBM 성공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보는 데 비해서 북한은 완성했다고 보고 있지요, 그 차이겠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 발표 내용 중에 북한이 '핵무력 완성'이라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우리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핵무기 체계의 완성' 이렇게 이해되는데 디바이스는 만들어져 있고 다양한 딜리버리 투발수단을 만드는데 이제는 가장 어려운

ICBM까지 개발을 함으로써 '핵무력 완성'이라는 용어를 썼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장관님, '핵무기 체계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북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추구하는 핵무력 체계의 완성은 핵무기의 소형화 그리고 그것을 탑재해서 공격할 수 있는 투발수단의 확보 이것이 목표라고 보고 특히 투발수단 중에서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백승주 위원 지금 핵무기 체계가 어느 정도 완성되어 가고 있고 완성되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가는 과정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과정에 있다, 아직 완성 안 됐다고 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들이 확인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드립니다.

○백승주 위원 이런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외교적으로 NPT 체제상으로 북한을 핵무기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문제하고 북한의 핵무기 체계가 전술적으로 사용할 만큼 완성되었다는 인식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국방부장관과 우리 군은 핵무기 체계가 완성되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에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건에 충족하면 전작권을 전환한다, 이런 기존의 원칙에 합의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문서상으로 딱 돼 있어요. '전작권 전환은 조건이 충족되면 최대한 빨리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ICBM 성공 발사가 이 조건 충족에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ICBM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군사적으로 대한민국 방어를 위해서 우리가 확보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요격수단과는 거리가……

○백승주 위원 아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ICBM을 개발하고 성공하는 것, 이것도 이미 조건 충족이라고 군사적 조건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군사적 조건에 ICBM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백승주 위원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군사적 조건에 ICBM에 대응하는 수단도 갖추어야 군사적 조건의 충족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ICBM의 어떤 군사적 대응은 우리 대한민국의 방어를 넘는 그러한 사거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하는 조건 세 가지 중에 그것이 명시적으로 들어 있다 이렇게 답변드리는 것은 좀 제한이 됩니다.

○백승주 위원 지금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북한이 저렇게 ICBM도 개발하고 여러 가지 투발수단까지 개발했는데 우리 군의 대응이 뭐냐, 여기서 말씀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에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고정발사대 위치 파악돼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번에 북한이 방현 일대에서……

○백승주 위원 고정발사대의 위치와 미사일 기지를 우리가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 고정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TEL, 이동발사대가 아니고 TEL에서 싣고 가서 옮겨서 소위 ICBM이나 그런 것들의 초기 단계에서 쓰는 발사대를 이용했다는 뜻입니다.

○백승주 위원 TEL은 이동하고 은폐되기 때문에 우리가 탐지가 좀 어렵지만 고정발사대는 탐지가 가능하고 탐지되어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군사목표화, 타깃화가 돼 있어 가지고 우리 군이 필요할 때는 고정발사대를 파괴할 수 있다는 능력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확신을 줘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고정발사대를 이용해서 북한이 실험이 아니고 실제로 공격할 징후가 있을 때 이런이런 무기체계로 파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좀 보여줌으로써 국민을 안심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능력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것을 사전에 파악하고 우리가……

○백승주 위원 그것 하려고 계속 킬체인 해 온 것 아닙니까? 킬체인이 바로 이런 고정발사대의 위치를 미리 파악했다가 필요할 때는 파괴할 수

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국민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고정발사대에서 발사했고 이런 발사대는 군사적으로 필요할 때 타격하고 파괴할 수 있다 이런 확신을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공개 차원에서 한번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그리고 이번에 결국은 ICBM 성공 여부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대기권으로 다시 재진입할 때 군사적 성능을 가진 채 형체를 가지고 재진입했느냐 부분의 판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판단이 유보되고 있지요? 그래서 한국과 미국, 일본 또 한국과 일본 간의 정보교류협정도 맺어졌는데 이런 사안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백승주 위원 정보교류협정 잘 작동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번 발사 이후에도 미국 포함해서 일본과도 우리가 초기정보를 전부 확인하고 교환했습니다.

○백승주 위원 이후 초기정보뿐만 아니라 심도 있게 정보 교류가 되어서 북한이 대기권에 다시 들어갔을 때 그 ICBM의 탄두에서 군사적 성능을 유지할 수 있는, 작동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판단이 필요하고 한일 정보교류협정이 제대로 작동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승주 위원 추가질문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o 의사일정 추가상정의 건

(09시45분)

○위원장 김영우 당초 의사일정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간사 위원님들과 협의에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상정하려고 합니다, 지금 의결이 가능한 정족수이기 때문에요.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질의를 잠시 중단하고 결의안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2.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위원회안)

○위원장 김영우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행위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 결의안은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의 사전협의를 거쳤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의안 초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 등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유발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포기하고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 정권의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행위가 대한민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넘어 분노를 촉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이와 같은 도발행위로 인해 겪게 될 대가는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서 감당해야 할 책임으로, 종국에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파탄과 영구 소멸까지 초래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위협을 억제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킬체인(Kill-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및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체계를 조속히 확립·구축하고 첨단전력을 보강할 것을 대한민국 정부에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북한이 핵실험, 미사일 발사 등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중단·포기할 수 있도록 기존의 제재조치에 추가하여 훨씬 강력하고 실효적인 압박과 제재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결의안에 이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순서와 관계없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료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사항을 반영한 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

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 긴급현안보고(계속)

-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09시48분)

○위원장 김영우 다시 질의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존경하는 김중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로 위원 김중로 위원입니다.

오늘 현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다 보면 정말 참 개탄스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핵·미사일만 나오면 저는 왜 이렇게 참 마음이 참담한지 모르겠습니다.

비핵화선언을 1991년에 하고 우리 대한민국만 착실한 학생처럼 지켜왔습니다. 북한은 13년에 이미 파기하고 핵을 가졌어요. 싫든 좋든 지금 핵을 가졌지요? 그렇지요, 장관님?

○국방부장관 한민구 뭐 핵을 가졌다고 이렇게 국방부장관으로서 확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김중로 위원 하여튼 간에 애매모호한 말씀하시는데 끝나가는 장관님한테 참 꾸중하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만 그러고도 역대 대통령, 장관들이 정말 국민한테 한번 사과하는 것 못 봤어요. 오늘날 40조 원의 국방비를 들이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안보를 못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국민 전체가 집단 안보불감 중독증에 걸렸어요.

어린애가 자랄 때, 어른 밑에서 어린애일 때는 어른의 보호를 받고 우산에서 비를 안 맞지만 지금 한미동맹이 64~65년 됐어요. 전작권을 준 지가 64~65년 됐는데 역사상 자기 주병력에 대한 작전권을 이렇게 장기간 준 예가 없고 어느 나라도 없어요. 지금도 조건에 의해 해야 한다, 시기에 의해 해야 한다, 참 말은 잘 붙이는데 어떤 조건인지 제가 세 가지를 읽어보니까 참 포괄적이에요. 또 가면, 무기체계 바뀌고 작전환경 바뀌면 또 연기하자고 할 겁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돼 있는지, 안보에 대해서 여야가 없다고 정치인들 또 국가 지도자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지금 청문회장에서도 두 패로 나뉘어 가지고 장관을 찬성하느니 반대하느니 싸우고 있고 이게 무슨 당론이다, 당의 입장이다…… 사람을 평가하고 그 사람이 적임자냐 아니냐,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판에 무슨 당론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하고 참 가관입니다, 요즘 보면.

전투는 군인이 하지만 전쟁은 국민이 합니다. 제가 엊그제 비상기획위원회, 정부에서 가져온 조직법을 보면 안보에 대해서 정말 말로만 하는 것인지…… 방금 말씀드렸듯이 전투는 군인이 한다 그러지만 전쟁은 국민 전체가 하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 전체가 물동량이나 인력이나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전시 대비해서 경험을 해 보고 또 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조직적인 것을 한 번도 한 일이 없어요. 그것도 어떻게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비상기획위원회가 없어졌어요. 안행부로 가서 국장이 무슨 안전실장이라 하고 또 안전처 생기니까 거기에 지금 예비역 중령이 국장이라고 앉아 있어요. 참 기가 찹니다.

그리고 무슨 안보를 노래 부르듯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것 다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우리나라는…… 나의 생명은 내가 지켜야지요. 전시작전권 빨리 한다고는 하는데 여기에 대비한 노력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는지 참 안타깝고, 국방조직이라는 것이 정말 미래전에 대비해서 돼 있는 조직인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조직인지 저는 참 의아스럽습니다.

그러고 무슨 나라를 지키겠다는 국민이 원정출산이나 하고 또 외국에 나가서 국적 바꿔서 면탈이나 하려고, 심지어는 자해를 해 가지고 군에 안 오려고 하고 또 요즘 새 정부 들어서 무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높여라, 대통령이 한마디 해 놓으니까 국방부에서는 또 무슨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를 한다 그러고 기가 막힌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방부장관이 무슨…… 거기 양심적 거부 그것에 대해서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종교적인 말씀을 안 드리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되면 아마 국방부장관이 교주가 되어야 될 겁니다. 정말 통탄스럽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것도 그래요. 오늘도 세부적으로 이것 언제 발견했느냐, 진입을 언제 하느냐, 몇 ㎞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데 지금 국방부에서 하는 일이 장관님 모두발언 나오는데 안보결의안 위반이다, 계속한다면 강력제재에 직면할 것이다, 만반의 대비를 갖추겠다…… 인쇄해 놨어요, 인쇄. 계속 사건만 나면 이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 국방기획관인가요, 장 장군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겠다 또 국제사회에 협력해서 하겠다, 추가도발 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 뭘 단호히 하겠다는지 나오면 얘기해요, 나오면. 국민들이 이제 아주 듣기에 거북할 거예요.

장관님이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두실 텐데 사드 때문에 고생도 많이 하고 그러셨는데 이런 문제를 후임자한테 반드시 해서 정권 차원이나 국방부가 책임을 지고 이 문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정부의 안보라인에도 군사 전문가가 별로 없어요. 어제 장관님 안 오셔서 내가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차장이라고 1명 있는데 그 사람도 연구기관에서만 오래 있었어요. 정말 차기 장관은 줏대 있고 제대로 대통령한테 맞장, 참 맞장 뜬다면 이상하지만 하여튼 바른 말을 해서 올곧게 나가고 선비적인 자질을 가지고 국방을 지켜나가지 않으면 상당히 우려스러워서 오늘 이 미사일 관련해서 국부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총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정부조직법에 비상기획위원회 빨리 만들 수 있도록 해서 국가가 전시 대비를 해야 됩니다. 전쟁은 없어야 되지만 반드시 대비는 해야 된다고 저는 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김중로 위원님께서 안보와 국방을 걱정하시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러한 사례를 들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다 참고로 해서 국방을 튼튼히 하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겠다는 총론적 답변을 드리고, 다만 국방부와 군은 북한의 어떤 전략적 수준의 도발 또 전술적 수준의 도발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명확한 구분을 가지고 대응하고 있고 또 억제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참고로 아까 말씀 중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검토하는 것처럼 이렇게 아마 어디 보도를 보신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 또 그런 검토를 저희 참모로부터 보고받은 바가 없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우 김중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구갑의 서영교 국회의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이야기하셨고 저희가 내내 이야기했습니다. 북에서 미사일 실험을 성공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성명서밖에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

○서영교 위원 그런데 오늘 아침에 한미 합동훈련이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무력시위를 했습니다.

○서영교 위원 예, 훈련을 하는데 그 훈련 과정이 어떻게 해서 훈련을 하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 모든 국민이 그렇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저렇게 성공하고 있는데, 이제 핵탄두 체계가 거의 완성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매번 성명만 발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는데요, 오늘 그나마 현무-2 그리고 미 8군 지대지미사일 관련해서 훈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훈련 관련해서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무력시위나 이런 것들은 어떤 상황에서 할 것인가가 사전에 계획되는 것이고, 이번 같은 경우는 양국 통수체계의 승인이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양국 통수체계의 승인이라고 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시를 하신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계획 보고가 됐고 대통령께서 승인하셨습니다.

○서영교 위원 지금 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나는 대화주의자다. 그러나 대화를 하는 것도 우리의 안보능력이 탁월할 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군사적 우위가 확실할 때 대화가 가능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확보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를 했고 그리고 미국과 연결을 하는 작업은 누가 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것은 군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고 또 어제 양국의 안보실장, 한국 안보실장과 미 NSC 안보보좌관의 통화가 있었습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면 군사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북한에서 이 미사일을 성공하지 않았어도 원래 오늘 하게 되어 있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이번 북한

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판단이 있었고 그것이 승인이 됐다는 뜻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 판단이,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한민구 장관께서 그 판단을 해서 올렸다 이런 말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 판단을 강조할 사항이 아니고 이 상황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대응조치 중의 하나로서 이것이 거론되고 승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요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그동안은 우리가 이런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성명서 외에는 하는 것이 없지 않은가라는 걱정을 했었고, 국방부 질의 과정 속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그리고 그것이 오늘 이런 훈련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우리는 걱정이 되는 거지요. 북한은 어떻게 저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얼마 전에 한 단계를 성공했다고 하는데 또 그다음에 저렇게 빨리 성공할 수 있을까, 그리고 북한의 김정은은 되게 어린 나이에 과연 장악력은 있을까, 그런데 장악력을 넘어서 온 세계에 걱정을 끼치고 우리도 걱정하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는 안일한 거 아니야?'라는 걱정까지 하게 만드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누누이 국방 위원으로서 이야기했고 오늘 뒤에 계신 분들에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어떤 방어체계를 갖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 스스로는 어떤 무기능력을 갖고 있는가, 김정은이 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경제적으로 제재를 받는 조건 속에서 저렇게 주도하면서 저런 무기체계를 만들어 내고 있을 때 우리는…… 국민은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해야 합니다. 안보불감증이 아니라 국민이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럴 만큼 우리는 과거에 북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위에 있는 것 맞나?' 이런 걱정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긴급하게 모이게 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성명서만 낸 거 아니냐라고 하는 지적을 하실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성명서만 낸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군 내부적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의 전력화라든지, 우리 한국 군 자체 또는 한미 연합으로 하는 무력시위라든지 또 전략자산의 전개라든지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왔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영교 위원 제가 국방부장관후보자 청문회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 안의 자주국방인 것 같습니다. 한미 연합·동맹으로 해 나가는 일들을 기본으로 만들어 내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 국방을 할 수 있을 만한 전력자산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현무와 미군의 지대지미사일 훈련을 보기는 했지만 '우리가 북한보다 훨씬 우월합니다'라고 하는 것들, 국방력으로 우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방부 자체 내에서 만들어 내야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도 일자리 추경이라고 해서 16억이 달랑 왔습니다. 저는 군 전문가들 키워 내는데 일자리 추경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중요한 긴급현안들이 발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군이 좀 더 전력을 투구해서 무기체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예산들을 확보해 나가는 작업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많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군에서 예산을 요구할 때는 여러 가지 사업의 타당성 또 가용기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교 위원 사업의 타당성, 가용기간 이런 것을 보다 보니 돈이 들어간 지가 오래됐는데 결과물이 없다 이런 부분 제가 어제도 지적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빨리…… 왜냐하면 전력자산에 힘을 투자하게 해야 그 생산물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전력적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 있게끔 교두보가 마련되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이 만들어졌고 한미 정상회담이 이루어졌고 그 사이에 어제 같은 경우

한미 안보실장들 간에 긴급한 통화가 있고 그러면서 일정 부분 훈련이라고 하는 게 빠르게 진행되어 나가고 그래서 국방부도 마찬가지로 한민구 장관께서 열심히……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잘 해 주셨는데 수장을 빨리 뽑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수장을 만들지 않고 계속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장관님, ICBM이 성공을 했다 안 했다, 또 확인된 바가 있다 없다, 가치가 있다 없다, 실패다 아니다, 완성이다 아니다, 이것 의미 있습니까? 지금까지 북한이 한 26여 년 동안 핵에 대해서 얘기를,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지만 북한은 핵개발에 대한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고 계속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 왔었고 그리고 하나하나 진전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어제는 8000㎞를 날아가는 실험에 성공을 했는데 그 현상만 가지고 실패했다 안 했다, 진입했다 안 했다, 이런 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적어도 국방 차원에서는 완전히 개발을 했다,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가정하에 그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런데 지금 국민들은 그런 얘기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ICBM이 개발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당연히 가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미국이 어떻게 대응하고 나올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진지하게 국민들에게 알려지거나 정보가 주어지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계속 하시는 말씀은 실패를 했다 안 했다, 이게 아직은 확인된 바가 없다 어쨌다, 이런 정도이지 않습니까? 마치 이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또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처럼 그냥 북한 핵을 그동안에 나왔던 얘기들처럼 '그것 개발되면 나중에 통일되면 우리 자산 아니야? 그것 실제로 무기로 쓰겠어? 북미 간에 대화하려고 쓰는 것이지', 계속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갖고 되겠습니까? 적어도 국방부라고 한다 그런다면 또 정부라고 한다 그런다면, 이런 정도 됐다고 한다 그런다면 ICBM이 완전히 성공했을 경우에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이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이 있어야 되고 국민들한테 그런 것을 알려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26년 동안 각종 북한 핵에 대해서 온갖 정책을 발표하고 온갖 것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두 번의 정상회담을 포함해서, 비핵화 선언을 포함해서 우리는 한미 간에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또 뭘 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전술핵을 다 철수시키고 미군을 철수시키고 수없이 조치를 했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스커드, 노동, 그다음에 ICBM까지 이렇게 계속 고도화시키고 진전을 시키고, 효과는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한테 이제는 이러한, 말하자면 북한의 핵 수준이 어디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하고 국민과 국가가 범국가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비핵화 공동선언 해 갖고 우리만 다 철수시키고 전술핵 다 철수시키고 했는데 이것 비핵화 안 되고 더 진전시켰다 그런다면 비핵화 공동선언 효력 완전히 상실했다, 이게 상실됐기 때문에 비핵화 선언을 해서 그때 우리가 약속을 지키려고 했던 것 다 원위치시키려고 하는 그런 입장 같은 것들을 새롭게 내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국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지만 성명, 논평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고, 지금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것만도 국방백서에 나와 있습니다. 플루토늄이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이게 일본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완전히 지금 무기로서 배치까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가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생존하고 관련된 문제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근본 대책면에 있어서 어떤 것도 이제 말로는 되는 것 아니니까 다시 우

리가 전술핵 재배치를 한다든지…… 왜 미국으로 철수를 시키냐 그 말입니다, 북한은 그것 하나도 들어주지도 않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그것을 재배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한미 간에 어떤 식으로 한국에서의 핵개발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을 해야지, 북한은 계속 그것을 고도화시키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가 핵개발을 하면,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그게 북한의 핵개발을 더 부추긴다. 핵 보유를 정당화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갖고 오히려 우리 국방이나 의지를 이렇게 약화시키는 게 맞느냐 그 말입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그다음에 솔직히 말해서 ICBM은 지금 미국에서 대처할 일입니다. 미국 국방부장관과 미국 대통령이 대처할 문제입니다. 지금 그것을 훨씬 넘어서 진즉부터 무기까지 배치를 해 놓고 있는 스커드와 노동미사일, 이것은 진즉에 완전히 개발 완료된 것 아닙니까? 그것만 한번 얘기해 봐요. 스커드하고 노동……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렇다고 한다 그런다면 지금 이미 한반도하고 일본은 완전히 북한의 핵무기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 건데 우리 국민은 무엇으로 보호하겠습니까? 지금 ICBM 걱정할 때입니까? 우리 국방부는 우리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건데요? 이것에 대한 안심과 안도감을 지금 줄 수 있습니까, 현재 하는 방식으로 해 갖고? 이빨이고 뭐고 다 빼놓고 이렇게?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국민들한테 안도감과 안심감을 못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 자신도 신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겁니다. 북한이 ICBM을 개발합니다. 북한이 지금 미국을 이기겠다고 하는 겁니까? 미국을 치겠다고 하는 겁니까? 북한의 의도를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은 아마 하나도 없을 겁니다. ICBM을 개발해 갖고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한국은 완전히 제쳐 버리고 미국하고 북한 간에 이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양보하고 다 내놔야 되고 다 우리가 분담해야 되고 우리는 완전히 질질 끌려다니고…… 결국에 가서는 결론은 뭡니까? 이렇게 한 이유는 결국 북한이 미국 제치고, 미국 너 한반도에서 나가고, 동북아에서 나가고 그러고 적화통일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도를 지금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이렇게 엄중하고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안보주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이미 완전히 우리한테는 배치되고 우리는 꼼짝 못 하는 상황으로 지금 북한 핵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안보주권이라는 단어나 용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부터 저는 전술핵 배치나 한국에서의 핵개발이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원위치에서, 제로 베이스에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근간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하는 국방정책 그리고 국방부장관의 그런 입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에 대한 장관님의 소신을 정말 좀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정현 위원님의 안보와 국방에 관한 아주 포괄적인 수준에서의 걱정과 정책의 재검토 이런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많은 부분 공감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국방부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분야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너희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의 현 수준만 갖고 얘기하고 있지 않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핵 정책의 특수성, 국제 레짐에 있어서의 관계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북한의 핵무기는 여섯 차례 핵실험을 거쳐서 소형화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그것이 북한이 목표하는 최종 상태를 달성했다는 것을 전제로 국방부와 군은 여러 가지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 현 상태만 보고 안심하고 있거나 지연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다 하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북한이 지금 단거리미사일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미사일의 종류를 한 1000여 발 다 가지고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에게 위협이 되는 것은 스커드와 노동 또 무수단 일부까지 표현되는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소위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적 미사일의 파괴 또 적 미사일의 요격 이런 것들, 또 적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는 응징,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통합해서 우리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의 미사일에 상응하는, 적어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커드나 노동의 숫자 그리고 그 미사일의 군사적 성능을 대등 또는 능가하는 미사일을 우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 더 많이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800㎞ 미사일 같은 것도 우리가 몇 차례 시험 성공을 해서 앞으로 그것도 또 전력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소위 안보주권이나 이런 문제, 용어를 가지고 지금 할 때냐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사실은 한국 정부나 한국군이 안보주권이나 국방주권을 놓고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 확실히 가지고 있고. 비록 전작권을 전시에 연합사령관이 행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도 양국 통수체계의 승인과 또 전략지시와 전략지침 내에서 행사되는 것이지 자의적으로 행사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그러한 제도는 다 우리 한반도 안보상황의 특수성이나 또 소위 안보태세의 확고함을 유지·강화시키는 방편으로 우리가 그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전반적으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다 유념해서 국민들이 걱정하시지 않는 국방태세, 안보태세를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한민구 장관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문 중에 제가 궁금한 게 생겨서 한두 가지만 우선 확인하겠습니다.

사드는 지금 실전 배치돼서 운용 중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가동 중인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또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가 ICBM을 막는 건 아니지요, 한반도에 있는 경우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보고자료에 보면 ICBM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거리와 속도, 이렇게 두 가지 기준을 들고 있습니다만 아까 여러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진입 기술도 있고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속도가 마하 21 이상이 되어야 ICBM이라고 그러는데 이번에 실험한 것은 속도가 얼마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요게 한……

○이철희 위원 자료에는 없어요. 보고자료에 없더라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제한돼서 자료에 안 넣었는데……

○이철희 위원 그럼 나중에 말씀하시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20보다 훨씬 떨어지는 수준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에 비춰 보면 사거리 이외에는 아직 'ICBM이다' 이렇게 단정하기가 좀 어려운 거지요. 그렇지요? '초기 ICBM이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초기시험 성공,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세 가지 기준을 놓고 보면 지금 하나 정도 성공했다 이렇게, 그것은 분명해 보이는 것 같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또 하나, 여기 율곡이이함이 최초 포착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2800㎞ 올라갔고 1000㎞ 가까이 날아간 것 아닙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우리 그린파인이나 이지스함으로는 전 과정을 포착하기는 어렵지요? 못 지켜본 거지요? 일부만……

○국방부장관 한민구 레이더의 사거리 또 고도……

○이철희 위원 제한적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범위 내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래서 어떤 전문가는 일본에 배치된 사드 레이더로 이것을 다 잡았을 거다 이렇게 보던데,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궁극적으로는 미국이 운용하는 군사위성의 레이더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일본에 있는 사드 레이더로도 잡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것도 틀림없이 다……

○이철희 위원 이번에 그러면 군사정보교류협정에 의해서 그런 자료들을 다 받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금은 초기 정보만 저희들이 확인했는데 앞으로 분석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한미일 3국 다 마찬가지. 나중에 그런 정보회의를 통해서 확인될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레이더망으로는 이번에 날아간 ICBM급 미사일은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없다, 그것은 분명한 거잖아요. 그렇지요? 우리가 갖고 있는 것만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또 하나, 아까 한미 연합 미사일 무력시위를 했다고 보고자료에 있는데, 이게 상황이 되면 하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이걸 여쭙냐 하면 국방위 하고 나서 미사일 실험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 했다는 보고를 제가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둔해서 그런 건지. 그동안 없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동안에는 없었습니다.

○이철희 위원 얼마 만에 이거 한 겁니까, 무력시위를?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여러 가지 형태의 무력시위가 있는데……

○이철희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쪽이 미사일을 쐈을 때……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가 함께 한 것은 처음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저는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명으로 규탄하고 국제 공조 열심히 하겠다, 이런 것만으로 우리가 대응을 했는데 새 정부는 일단 미사일에 대해서는 미사일로 대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는 새로운 대응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당한 의미를 둬야 된다고 평가를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속적으로 이 정부도 북한의 미사일이나 핵 위협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편이라서 말씀드린 거고요.

미국 국방정보국 탄도미사일분석위원회라는 데서 만든 자료, 이게 공개되어 있더라고요. 일부 언론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거 보니까 북한이 갖고 있는 ICBM이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대포동2하고 화성-13, 화성-14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 보면 이번에 실험한 거랑은 많이 달라요. 우선 화성-13은 5500㎞ 정도 나간다는 거고, 화성-14가 이번에 쏜 건데 이 자료에 보면 5500 정도 나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게 틀렸다, 맞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미국조차도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 이렇게 진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못 따라가고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한미가 예상한 것보다 북한의 미사일 수준이, 기술 진척이 훨씬 빠른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북한이 핵 보유국을 노동당 강령, 헌법 전문에 명시하고 핵·미사일 무력을 완성하는 것을 국가적 목표로 하면서 모든 국가적 역량을 확보해서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요. 이게 최근에 나온 미국 자료, 미국 정보기관을 총동원해서 조사해서 이렇게 자료를 냈다는데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번에 화성-14호 실제로 쏜 것에 비하면 이 자료가 굉장히 엉성해요. 자료가 정보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제가 받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 결국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관련해서는 한미 간의 정보 분석이 조금 뒤따라가는 형국이다, 속도를 못 따라잡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에서 드린 말씀이고요.

ICBM에 대포동2라고도 명기되어 있는데 이거랑 화성-14호는 뭐가 다른 겁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대포동이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은 1998년 8월 31일 날 첫 번째 대포동 1호라고 하는 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이라고 북한은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쳐서 발사를 했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게 별 차이 없는 건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은 북한이 위성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군당국은 위성이든 장거리미사일이든 간에 탑재체에 무엇을 싣느냐의 문제이지 기본적으로는 똑같다……

○이철희 위원 별 차이가 없는 거네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북한이 위성이라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장거리미사일 개발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 평가해 왔고 그 연장선상입니다.

○이철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전문가들은 ICBM급을 실험했으면 곧 6차 핵실험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던데 그렇게 보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북한의 핵·미사일 무력 완성이 국가적 목표이기 때문에 아마……

○이철희 위원 할 것이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런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이철희 위원 저는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이라는 게, 제가 SLBM도 다뤘고 ICBM도 다뤘고 그 다음에 핵(Nuclear) 이런 면들이…… 표현을 하자면 이니셜만 따면 SIN이 됩니다. SIN 전략을 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격능력을 키워서 능동적 억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장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 군의 전략개념이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개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명 위원 이종명 위원입니다.

이번 ICBM 시험발사를 통해서 이렇게 보면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또 며칠 전에는 한미 정상회담까지 했는데 북한은 비핵화라든가 핵 포기를 위한 대화나 협상의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지만 어제 발사한 그 미사일이 ICBM이다 아니다, ICBM이 성공했다 안 했다 이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조금 미흡하더라도 곧 얼마 안 있어서 완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우리가 왜 지금까지 이 지경까지 이렇게 오도록 놔뒀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권에서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책임을 피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미사일을 발사했을 때 이렇게 보면 그게 누가 먼저 알았느냐 또 몰랐느냐, 일부 먼저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것을 가지고 따지고 했지 정말로 거기에 대한 미사일의 의미와 그게 향후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치권에서도 심도 깊게 같이 의견을 나누지 못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북한 ICBM 발사 성공 발표를 보면서 북한이 발표한 대로 ICBM이 성공했다 그러면 미사일 체계는 북한에서 완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미사일에 같이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과 핵탄두를 결합할 수 있는 마지막 핵실험이 곧 임박했지 않느냐, 아까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핵실험에 대한 징후들을 지속적으로 계속 추적을 하고 있을 텐데 최근에 핵실험에 대한 징후들이 포착된 것들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저희가 오늘 보고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핵실험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관련해서 특이하게 임박했다거나 이런 징후를 저희들이 식별한 것은 없습니다.

○이종명 위원 ICBM 발사를 보면서 이번 ICBM 발사가 꼭 ICBM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북한의 미사일 발사기술들이 다양화, 다종화 완성 단계에 있다 이런 것들로 봤을 때 ICBM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기 때문에 원거리 타격을 위한 미사일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사거리의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이 이제 완성되었다고 봤을 때 우리 군이 지금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하고 있는 것이 2020년도나 되어야지 킬체인이라든가 KAMD, 적어도 저는 2020년도 초반이 되어야지 완성된다고 봤을 때 굉장히 늦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킬체인하고 KAMD를 병행해서 하면서 우선은 북한의 다종화된 미사일에 대한 대비책, 대응책 이런 것들이 시급하다,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우리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 다양한 미사일도 있고 외국에서 도입한 미사일도 있고 거기에 하나 더 더한 것이 사드 체계인데 이 사드 체계가 지금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르고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데 이제는 사드 배치에 따른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 이런 것들이 종식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현 정부의 인식이 아직까지도 대화와 협상, 비핵화 여기를 염두에 두고 있는데 국방부장관님으로서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포괄적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군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억제 또는 유사시 응징할 수 있는 그러한 개념에서 3축 체계라는 개념으로 능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요격능력, 특히 KAMD 체계에 관련해서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더 빠른 시기 내에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아주 굉장히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전력 증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부의 비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더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는 것이냐 하는 측면에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의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종명 위원 북한의 미사일 기술이라든가 핵무기 기술이 점점 더 완성되어 감에 따라서 3축 체계 중에 킬체인이라든가 KAMD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우리의 대북 군사전략 차원에서 KMPR(대량응징보복)에 대해서도 정말 심도 깊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어쩌면 가장 실효적인 효과는 거기에서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의 축출이라든가 또 붕괴라든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검토하고 있었던 그리고 준비하고 있었던 참수작전을 포함해서 북한 정권의 붕괴, 체제 전환 이런 것까지도 다 심도 깊게 검토하고 준비하고 정말 내실 있게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취지를 제가 잘 이해하고 있고 하여튼 군의 입장에서는 북한 도발 또는 위협과 관련한 다양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깊이 있게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종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질의는 모두 마쳤고요, 추가질의 요청하신 위원님들이 좀 계십니다.

먼저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은 5분입니다.

○백승주 위원 장관님, 파키스탄하고 인도가 핵무기 보유를 하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파키스탄과 인도는……

○백승주 위원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P-5는 아니지만 잠재적인 핵보유국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잠재적인 핵무기 보유국가로 분류되고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1967년 이후에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NPT 체제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가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핵보유국가로 모든 군사전문가들이 보고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고.

저는 북한이 지향하는 국가의 군사적 모습이 지금 파키스탄과 인도로 봅니다. NPT 체제상으로는 핵무기 보유국가가 아니면서도 실질적으로 핵무기 보유국가로 인정받는 것이 지금 국가의, 그 체제의 목표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인식을 국방부장관님이나 국방부의 인식은 외교하고 달리 핵무기 체계를 완성했다…… 핵탄두 개발 또한 세 번 내지 네 번 실험하면 디바이스 핵무기, 핵탄두를 개발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투발수단과 핵탄두를 갖춘 핵무기를 보유한 체제로 인식하고 여기에 대한 국방정책이 정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2003년도에 이미 북한의 실질적인 핵무기 보유에 대한 국방정책의 조정방향에 대해서 보고서를 낸 적도 있습니다. 그렇게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지금 장관님 말씀을 들으면, 모두에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비해 왔던 것을 충분히 국민에게 설명을 잘 안 하고 있어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당시에 1조 5000억이라는 캐시를 들여서 독일 내에 배치돼 있던 패트리어트 미사일을 사왔습니다. 돈을 들여서 대비해 왔고,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미사일협정을 개정해서 미사일 발사기지와 미사일 발사대를 부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국제법적 요건을 만들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아시지 않습니까? 한미미사일협정에 따른 우리 미사일 전력을 조기에 전력화하기 위해서 모든 관심과 지원을 집중해서 미사일 개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전력화시켜서 지금 현 대통령은 그것을 가지고 군사연습을 어제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느냐, 미사일 발사대와 발사기지, 미사일 기지를 부술 수 있는 준비를 해 왔다, 그렇지요? 해 왔는데 이것을 그래도 발사되는 것들을 잡기 위해서 패트리어트 미

사일과 요격체제인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데 사드 배치에 발목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장관님은 사드가 조기에 전력화되어야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소신을 갖고 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 온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공자와 방자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완료되고 난 뒤에 그 무기체계를 사용하겠습니까, 공자 입장에서 사드 무기체계가 없을 때 미사일 사용한 공격을 결심하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당연히 공자로서는 방자의 방어준비가 완료되지 않았을 때……

○백승주 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사드 배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군사적 어떤 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점에서 장관님이 소신을 갖고 해 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ICBM은 사거리가 길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공격하는 데 사용되지 않을 거다라는 주장은 너무나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ICBM을 발사함으로써, 발사능력을 갖춤으로써 미국 여론에다가 한국전이,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증원군을 보내는 결심을 주저하게 합니다. 연합전력에 엄청난 손실을 줍니다. 미국이나 다른 국가에서 대한민국을 지원하려고 할 때 핵공격을 받을지 모른다면 도저히 지원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거지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우리의 한미연합전력에 손상을, 데미지를 주기 위한 ICBM 개발이다, 미국을 공격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한미 전력을 손상시키고 우리의 전쟁능력을 아주 낮추기 위한 무기 개발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ICBM이 군사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힌다기보다도 국제적, 외교적, 전략적인 그러한 손실을 주는 특징이 있다라고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리고 지금 북한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고각도발사 성공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중거리미사일을 가지고 각도를 조정해서 자유자재로 조절해서 중거리미사일 가지고도 우리 영토를 공격할 수 있다. 종심이 짧지만 중거리미사일도 대한민국 영토를 공격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자신만만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모습이 고각도 성공이라는 용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군사적 의미를 잘 살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에 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서영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교 위원 서울 중랑갑의 서영교 위원입니다.

미국하고 소련이 냉전시기에 양쪽의 국방력은 세계 최고였고 전쟁의 위협도 컸지만 어떻든 비슷한 군사력 그리고 팽팽한 군사력 이런 것 속에서 또 지도부의 결단으로 세계는 평화체계가 구현되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미소 간 냉전시기에 군사력이 대응하다가 아시는 전략무기감축 협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서영교 위원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나지 않아야 하는데 어제 북한이 ICBM 화성-14호를 발사했고 세계가 경악할 상황이었는데 오늘 오전에, 아까 우리 이철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몇 번에 걸쳐 북한의 미사일 발사, 걱정도 많았지만 그것에 발 빠르게 대처한 것이 오늘 한미 군사훈련이었다, 맞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이것에 대해서 크게 평가를 안 하시는 모양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나 핵실험이 있을 때마다 우리 단독 또는 한미가 그러한 대응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 또는 외교적 조치를 다 취해 왔는데 오늘 아침에 07시에 실시한 그 무력시위도 과거부터 죽 어떨 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상정하고 만들어 놓은 계획이었는데 이번에 양국 통수체계에……

○서영교 위원 그러니까 이철희 위원님 말씀처럼 저도 국방 위원이 되고 처음 상황을 접했던

것 같아요, 그 훈련 상황은.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한미 정상회담이 얼마 전에 이루어졌고 그것에 일정한 신뢰가 구축이 되었고 그러면서 안보실장 간에 대화가 있었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국방 관계자들 간에 보고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이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일정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기반이다라고 하는 것에서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질문을 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번에 했던 훈련 중에서 어떤 것이 현무-2…… 현무-2라고 하나요? 그다음에 지대지미사일, 지대지미사일은 다탄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이 지금 북에는 그러면 우리가 그 훈련을 했고 이런 것을 보였을 때 북이 '아, 우리가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여 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따가 한번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장관은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서영교 위원 저희가 킬체인 체계로 정찰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타격을 제대로 하고 그래서 안전을 가지고 온다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에게는 정찰자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타격자산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큰 그림 속에서 진행해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요.

제가 한 가지, 북한이 이런 기술들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이렇게 끊임없이 미사일을 개발해 내고 북한이 하기는 하지만, 거기까지 할 수도 있어? 우리 이정현 위원님 말씀처럼 한다, ICBM 개발 성공하고 쏠 가능성 높다라는 것까지 다 준비하고 생각하고 대비태세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빠르게 애네들이 성공할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그 인력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개발자산은 어떻게 되는가, 실제로 이 미사일을 성공해 내기까지 그들의 역량은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가, 다른 곳이 지원하고 있는 것인가, 그다음에 이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랜섬웨어처럼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곳곳에 이뤄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박근혜정부나 이명박 정부가 툭 하면 북한 소행이라고 하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그 사이버 공격 능력과 기술도 이런 식이라면 정말 뛰어난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의 능력, 전력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그렇다면 집중적으로 준비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히려 공개적으로 널리 알려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팽팽한 균형을 보여 줘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서영교 위원님께서 금일 아침에 실시한 한미연합 무력시위의 의미에 대해서 아주 통찰력을 가지시고 높이 평가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무력시위는 우리가 북한이 여러 가지 전략적 도발을 할 때 어떠한 수준에서 대응을 할 것인가를 한미 간에 여러 가지 구상을 해 놓고 있고 또 그것을 실제 지금까지 해 왔습니다.

그중의 하나로서 우리가 어제 북한의 신형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겠다고 판단해서 시행을 했고 그것은 바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북한에 대한 응징의지를 한미가 보여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또 이것이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성명서로만 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들이 계셨는데 그렇지가 않고 '한미가 함께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 여러분께도 보여 드리는 계기가 되었다고 보고 아마 그것 말고도 또 추가적인 한미연합 조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북한이 어떻게 이렇게 능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핵과 관련해서는 이미 김일성 생존 시부터 핵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정책적 결정을 해서 지금 적어도 우리가 확인한 것이 1989년도니까 그 이후부터 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핵을 개발해 오고 있는 것이고 미사일도 이미 벌써 70년대부터 스커드나 이런 미사일들이 왔는데 이것은 전부, 미사일은 구소련의 여러 가지 미사일들을 소위 벤치마킹해서 또는 기술지도도 받았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핵은 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서영교 위원 그때 기술이 지금 미사일 기술에 기반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진화하고 있는 것이지요.

○서영교 위원 획기적인 발전의 기반이 된다고 보시나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그때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서영교 위원 그때부터 시작인데 지금 시점을 질문하는 것이지요. 그거야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 것이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이 축적이 되어서, 또 북한은 북한의 인재들이 주로 군 관련되는 분야에 많이 집중된다고 우리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많은 우수한 인력자원들이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군수공업 분야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북한의 재원 중에서도 조달할 수 있는 재원의 대부분을, 민수경제는 좀 희생하더라도 군수경제에, 군수공업에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소위 성과를 그들 측면에서 봐서는 보여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하여튼 북한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헌법 전문과 노동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국가의 지상목표로 하고 국가적 총역량을 경주하는 결과로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 군은 또 정부는 소위 북한이 목표로 하는 최종 상태가 달성됐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시점은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대응역량을 키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버 능력과 관련해서는 북한이 세계적인 수준에서도 상당한 인력과 또 그러한 역량을 가진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도, 이건 구체적으로 우리의 능력을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이런 상당한 수준에서 대응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드립니다.

○위원장 김영우 서영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철희 위원 여전히 좀 질문이 생겨서 한두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한미연합 미사일 무력시위가 처음으로 하는 거라 그러셨지요, 미사일에 대한 대응으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처음 한 것이지요? 그리고 대통령이 승인했다, 승인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말씀 중에 '그동안 계획으로 이미 잡혀 있었다' 이런 말씀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과거에도 국방부 차원에서는,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을 여러 번 했으니까, 죽 해 오고 있으니까 그동안에도 대통령에게 '이런 무력시위 합시다' 이렇게 요청을 드린 적이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요청 한번도 안 드렸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 계획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게 오래된 계획은 아니고요, 북한의 미사일이 진화하는 것과 궤를 같이 해서……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무력시위 이런 게 필요하겠다, 우리 대응으로 필요하겠다고 한 것은 언제쯤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지난해 말 정도……

○이철희 위원 작년 12월에?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저는 국방부가 진작 이런 것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더 공세적으로 이런 것을 고안을 하고 통수권자에게 건의도 하고 해서 실행에 옮겼으면 더 낫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 조치도 앞으로 있을 거라고 하니까, 제가 아까 공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공격보다는 공세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약간 수정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은 좀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사드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관련해서, 지금 발사대는 2기가 올라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레이더에 하나가 올라가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흔히 2 플러스 1인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면 이것 말씀해 주실 수 있

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부에서는 발사대는 2기가 올라가 있는데 미사일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해요. 미사일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을 겁니다.

○이철희 위원 미사일 없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미사일이 없으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미사일 들어와 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몇 개나 들어와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미사일은 그것……

○이철희 위원 기왕에 무력시위도 했는데 뭐……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사드 1개 포대가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미사일 48발로 기본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발사대 1기가 6발인가요? 8발이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8입니다, 8.

○이철희 위원 8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6×8은 48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8발이니까 2기가 와 있으면 최소한 16발은 들어와 있는 거지요? 아, 그래야 안심을 하지요. 미사일도 없다고……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사드는 지금 가동 중에 있고 미사일도 들어와 있고, 언제든지 이것은 쓸 수 있는 것이다 이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혹시 또 오해가 계실까 봐 말씀드리면 1개 포대 전력이 다 들어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좋습니다.

제가 아까 SIN 전략이라고 SIN이라고 그랬습니다. 영문 이니셜을 따다 보니까 그런 거지요, SLBM, ICBM, 핵. 핵이 N이니까 북한이 쓰는 게 SIN, ‘SIN 전략’이라고 쓰는데 써보니까 이게 한반도 불안의 도덕적 원죄 같기는 해요. 군사적 원죄 같기는 해서 단어에 집착이 생기고 하는데, 어쨌든 아까 이종명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북한이 쓰는 SIN 전략에 대응하려면 제 판단은 3축 체계 중에 KMPR이 더 강조가 되고 더 보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작년 어느 시점인가요? KMPR이라는 게 3축 체계, 양축 체계에서 3축 체계로 진화를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것 뭐 주문입니다. 그래서 KMPR 공세적 대응을 하려면, 능동적 억제 이런 것을 하려면 우리가 주적을 겁내게 만들 무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기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내년 예산 짤 때 그 부분을 대폭 보강해서 갖고 오시면 좋겠어요. 맨날 하듯이 킬체인, KAMD 이렇게 나누어서 하지 마시고 저는 우선순위를 KMPR에 두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북한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 핵심 공격무기가 뭐냐, 우리는 이거다 이렇게 내세울 게 좀 있으면 좋겠고요. 내년 국방예산 편성할 때 그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철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우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하여튼 북한의 전력 상황에 대해서 알려진 내용만 가지고도 참 굉장히 위협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국방백서에 나오는 플루토늄 양만 가지고도 현재 북한의 핵무기는 9개에서 50개, 앞으로 20개에서 90개까지 늘어날 수도 있고 평균 30개만 잡아도 어마어마하다.

또 늘 말씀드렸지만 20만 명의 특수부대, 생화학무기 5000t, 뭐 굉장히 낡은 것까지 포함해서 했겠지만 장사정포 5500문, 사이버부대 6800명, 128만 명의 군대가 10년씩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숙련된 북한의 군 이런 것 감안했을 때 굉장히 위협적인데 국방, 안보의 목표가 뭡니까?

우리 안보의, 국방의 목표가 뭡니까, 전쟁으로 말하자면?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의 목표는 적이 전쟁을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이정현 위원 잠깐만요, 제가 지금 듣고 싶은 답을 말씀하셨거든요.

이 앞전에 인사청문회 하다 보니까 신임 지명되신 후보자는 끊임없이 하여튼 처음부터 끝까지 ‘싸워서 이기는, 싸워서 이기는’ 표현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 또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아까처럼 제가 나열했었던 그런 핵무기와 생화학무기와 특전사들과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전쟁을 해서

다 망가지고 다 죽은 뒤에…… 한 방이면 50만 명씩 죽을 수 있다는데, 대여섯 방이면 완전히 지도상에서 없어져 버릴 수도 있는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갖고 싸워서 그런 전쟁을 해 가지고 이기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지요.

방금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 상대방으로 하여금 싸움 자체를 걸지 못하도록, 전쟁 자체를 일으키려고 하는 그런 의지 자체를 꺾고 억제를 하게 하는 것 그 효과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정현 위원 그런데 말씀을 하신 대로 북한은 지금 그렇게 어마어마한 무기체계를 갖추고 또 말하자면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우세한데 싸움을 포기합니까? 그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게 이제 우리도 거기에 맞는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갖춰야 되는데 그게 바로 전술핵에 대한 한반도의 재배치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전술핵이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과거에 있었습니다.

○이정현 위원 58년도에 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렇습니다.

○이정현 위원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것을 줄이고 줄이고 하다가 91년도에 북한의 비핵화선언 그것 하면서 한국에 있는 말하자면 그러한 전술핵을 다 철수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은 그보다 훨씬 더한 것으로 핵무장을 했어요. 그런 북한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 감히 엄두도 못 내게 하는 억제효과를 내려고 한다 그런다면……

우리는 다 무장해제를 해 놓고, 상대는 갈수록 더 강하게 무장을 해 놓고 그리고 강하게 무장한 쪽으로 하여금 전쟁을 포기하게 하고 전쟁에 대한 의지를 없애게 하고 억제를 하게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입니까? 이런 말장난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모든 것이 걸려 있는 안보정책의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전술핵의 재배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문제제기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고 또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전략도 아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북으로 하여금 그러한 갖추고 있는 고도화된 무기들을 쓰지 않고 전쟁을 포기하게 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그보다 더한 억제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을 갖추자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보를 위한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쟁을 발발하지 않도록 억제, 또 만약에 유사시에는 발발하면 승리 이렇게 되겠습니다마는 억제가 더 우선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억제를 달성하는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외교력도 있고 군사력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군사적으로 보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 중에 전술핵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것도 한 수단이 될 수 있고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정책으로 채택해서 실행하느냐 하는 문제는 위원님 질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또 우리 관련 국가 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더 검토가 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으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한미연합 방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미국의 확장 억제라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핵우산을 포함한 여러 가지 재래식 전력, 우리의 능력을 포함해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북한의 그러한 가공할 만한 군사력에 대해서 현재 억제를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백승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위원 앞서 질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는 가장 원론적인 것은 미사일을 손으로 던질 수는 없지 않습니까? 발사대가 있어서 미사일 기지가 있어야 되는데 미사일 기지와 발사대를 파괴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도 한미 미사일 개정 협정도 했고 이 개정 협정을 할 때 우리 정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중부권에서 모든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다 부술 수 있기 때문에 미사일에 대한 위협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미사일을 박근혜 정부에서 조속히 전력화, 시험개발에 성공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조기 전력화하고 충분한 양을 획득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십시오.

그리고 발사기지를 목표 삼아서 날아오는 미사

일을 잡기 위한 요격체제를 갖추기 위해서 사드, 패트리어트는 갖고 있고 아까 사드도 1개 포대전력이 전력화됐다는데 4개 발사대는 지금 창고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조속히 완전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것을 국방부 입장으로 해서 정부를 설득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페리 전 미 국방장관도 공개적으로 2006년도인가 2007년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대, 발사기지를 부수어야 되는 능력에 대한 것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오늘 보고서 내용 중에서, 정책실장대리님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에 발사한 발사대가 '고정형 발사대는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방식이다. TEL 손상 방지를 위해 운용한다', 이게 맞아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것을 제가 답변 드리면 우리가 이동형 발사대를 TEL이라고 하고, 지금 백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고정발사대 또 그것을 조기에 무력화시킨다는 그것은 동창리에 있는 발사대 같은 그런 유형을 말씀하시는 거고……

○백승주 위원 지금……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조금 더 답변 드릴게요.

오늘 보고서에 나오는 고정형 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동창리 스타일의 발사대가 아닙니다.

○백승주 위원 아니, 그렇게 이해를…… 쓰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방부는 지금 보고서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고생을 하셨는데 글은 써놓고 나면 읽는 사람은 그럴 겁니다.

여기에 고정형 발사대는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방식이다. 이게 ICBM 발사 실험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임시 발사방식이다, 또 TEL 손상 방지를 위해 운용하는데 이번에 발사한 것은 TEL로도 발사할 수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TEL로도 발사할 수 있을 텐데……

○백승주 위원 장관님, 이 용어는 다시 한번 재검토하세요. 제가 그래도 평생을 국방분야에서 일해 왔는데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고정형 발사대는 연구·개발 단계의 임시 발사방식이고 TEL 손상 방지를 위해 운용된다, 이 부분은 보고서 쓴 사람은 머리에 메시지가 있겠지만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분석결과가 ICBM 올해 개발 발사한 것은, 방현에서 발사한 것이 임시 발사대에서 발사한 것이다, TEL로도 발사할 수 있는데 TEL로는 손상 방지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 그것 제가 답변을 드리면……

○백승주 위원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끝나고 말씀을 좀 해 주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러면 나중에 질문 다 하시고……

○백승주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하고……

지금 '무력시위, 시위' 하는데 그 표현도 저는 마음에 안 듭니다. 그것을 시위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한번 따져 보십시오.

북한은 ICBM을 발사했는데 우리는 미사일…… 군사연습이면 연습이지 연습으로서 무력시위를 했다 그것 좀 한번 더 생각해 볼 점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시위라는 말이 맞는지. 누구한테 시위를 한 겁니까? 북한 보라고, 우리 국민 보라고, 미국, 외국 보라고? 시위라는 말은 여기 이 보고서에 담을 내용이 될 건가…… 의미는 볼 수도 있는데……

아마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같이 공동으로 대처한다는 이런 것 합의한 게 있으면 따라서 준비가 되어서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미사일 연습이지요. 북한의 미사일 연습인데, 군사연습인데 이것 시위라는 표현도 조금 아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시려던 것 하십시오.

○국방부장관 한민구 먼저 무력시위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까지 써 왔던 용어로서 썼는데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발사를 고정발사대를 사용했다, 그리고 그것은 미사일 개발의 초기단계에서 쓰는 것이다라고 한 표현은 이런 뜻에서입니다. 우리가 TEL이라는 TEL을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동발사대에 거치해서 미사일 단거리이든 중거리이든 대륙간탄도미사일 쏠 수 있는데 그것은 소위 여러 가지 시험을 거쳐서 TEL의 생존성이 다 확보된 상태에서 그렇게 쏘는 것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소위 고정발사대라고 하는 것은 TEL에 비해서 FEL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FEL. 이것은 아직 시험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미사일을 발사하다가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이동발사대에서 쏘다가 시험을 하다 보면 이동발사대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초기단계에 이동발사대로 옮겨서, 소위 고정발사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다가 장착을 해서 발사를 하는 그런 형태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백승주 위원 지난 5월 14일 발사한 것은 뭐로 했어요? TEL로 했어요, 고정발사대로 했어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때도 고정발사대였습니다.

○백승주 위원 그때도 고정발사?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백승주 위원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런……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마 이런 시험발사가 다 끝나면 이제……

○백승주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제가 볼 때는 읽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독이 잘 안 되는, 이해가 잘 안 되는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백승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 죄송합니다. 질의보다는 저는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관님을 포함한 국방부 관계자들은 어차피 지금 이 회의를 지켜보고 있을 거니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주 엄중한 상황 아닙니까. 일본과 미국을 때릴 수 있는 모든 핵무장이 완료가 됐고 이제 미국까지 이렇게 협박을 하고 있는 지금 북한의 무모한 그러한 도발에 대해서 아주 엄중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국방에 대한 주쟁점은 뭐냐 하면 북한의 128만 명의 군대와 싸워야 될 우리 군들은 현재 68만 명을 52만 2000명으로 줄이겠다, 군인을 줄이겠다.

그다음에 공중에 떠있는 미국의 많은 위성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항공모함이라든가, 그 밖의 첨단무기들에 대해서 우리는 만져보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고 있으면서도 평시에 이미 갖고 있는 전시작전권을 전쟁 시에도 빨리 이관을 해 오겠다, 그것도 임기 내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전력을 갖추고 나서 가져오겠다는 것은 말이 없이 우선 하여튼 빨리 가져오겠다, 전시작전권부터 가져오겠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한반도에 있어서 북한의 핵 동결을 계속 강조를 하면서 그냥 우리는 완전히 핵의 그러한 공격하에 있어도 괜찮은데 어쨌든 미국만 당하지 않으면 된다, 말하자면 아주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지금 현재 핵 상태, 한반도를 때릴 수 있는 북한의 핵 보유는 인정을 하고 미국만 안 맞으면 되는 그런 핵 동결, 비핵화가 아닌 '핵 동결'이라는 단어들을 이렇게 써 가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은 계속해서 무력으로, 전력으로 우리를 압도해 가고 있고, 고도화를 해 가고 있고 지금 이렇게 결과로 오늘 같이 실험이 나온 것인데 이 결과를 하기 위한 준비나 기술은 이미 우리가 모르는 수 없이 발표되지 않은 것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전력을 약화시키고 북한으로 하여금 더 우리를 우습게보게 만들고…… 정말 무슨 애교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국방의 여러 가지 용어들이나 쟁점들이나 현안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 국민들은 '아, 북한이 별것 아닌갑다. 쟤들이 진짜 그런 것에 대해서 전쟁으로 쓰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닌갑다' 하고 안심하고 안도하고 국민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심각성을 모르고 있다 보니까 범국가적이고 그다음에 온 국민이 안보에 같이 대응을 하고 같이 마음을 합치고 하는 그런 어떤 일심의 이러한 분위기를 완전히 깨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방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소홀하게, 국민들의 이러한 안보의식에 대해서 약화돼 가고 있는 것은 소홀하게 하고 있고, 이미 정부와 국방부조차도 아까처럼 우리 전력을 약화시키는 그러한 국방개혁과 정책만 강조를 하고 있고 어떻게 이것을 정말 선제적으로 막을 것인가, 선제적으로 타격할 것인가 하는, 국민들에게 이러한 안심과 안도감을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나 정책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으니까 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국방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몇 가지 사안들 그런 것, 그냥 정권과 정부를 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대통령의 성향을 좀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그냥 국방은 국방이지 무슨 정권의 국방이고 무슨 대통령의 국방이 돼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시간이 급해서 '임기 내, 임기 내'라는 말을 그렇게 반복적으로 쓰고 국방부에서도 그런 용어를 쓰고 하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정말 국민의 생명, 재산 전체와 관련된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가볍게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만이라도 정말 옛날 임금 시대 말하자면 간신 말고 정말 충신이 돼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NSC 회의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곳곳에서도 단호한 목소리, 일관된 목소리, 정권을 초월하고 대통령을 초월한 그런 목소리들이 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이 위원님,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제가 말씀을 들으면서 손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서 그걸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천수백년 전에 일찍이 손자가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국가의 일 중에서 가장 큰일이다. 이것은 죽고 사는 문제이고 존재하고 망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세심히 집중해서 관찰하고 다루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갈파했는데 당연히 군사적으로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 국방부의 당국자들은 이러한 경구를 새겨서 여야나 정권을 초월해서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한미 군사훈련, '무력시위'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게 어떤 점에서 무슨 이유로 처음이라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한미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연합으로 훈련을 한 것은 처음이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우 미사일에 대응해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 김영우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한미훈련을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동해상에도 했고, 그런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 김영우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지상에서 하는 한미 연합훈련도 있었고요, 해상에서 하는 것도 있고 공중에서 하는 것도 있고 최근에도 했고 다 했는데……

○위원장 김영우 어떤 점에서 다르다는 거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특정하게 미사일 도발에 대응해서 미사일로 응징의지를 밝힌 것은 처음이었다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여태 한 번도 안 했다는 게 참 기가 막힌 노릇이네요. 작년 12월에 아까 '계획보고'라는 말씀을 쓰셨다고 하는데 여태까지 수없이 많은 미사일 도발을 해 왔는데, 그래서 처음이라는 게 어떤 점에서 처음이라는 건지 제가 이해가 좀 안 가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러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해서 한미의 탄도미사일을 운용해서 한 그런 연합훈련으로서는 처음이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영우 탄도미사일에 대응했다는 것은 그것을 요격하거나 아니면 원점타격 아닙니까? 둘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니, 이것은 요격이나 원점타격보다도……

○위원장 김영우 뭘 무슨 시위를 했다는 거예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우리의 응징의지를, 미사일로서 대응의지를 밝혔다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우 그런데 뭐 처음이다, 처음이다 자꾸 이래 가지고 저는 그게 정말 와 닿지가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시위, 이러이러한 무력훈련을 했다라는 게 전혀 나가지도 않고 현무-2인가 그것하고 지대공이것 발사했다 그러는데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방부는 자꾸 북한의 핵과 미사일 기술 수준에 대해서 '아직까지 성공이다라고 단정 짓기에는 제한적이다' 이런 표현을 사실 수차례 써 오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것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게 ICBM이나 북한의 미사일은 하나의 무기이기도 하지만 외교수단 아닙니까, 그렇지요? 외교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가짐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대북 여

러 가지 협상이나 대화할 때 북한은 보다 우위를 선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까지의 대화와 이런 것에 있어서 완전히 다른 의제를 선정해야 될 것이고,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것이고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우리 국방부는 계속해서 북한의 그런 기술 수준을 낮게 평가하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기술 수준을 평가한 것인지 아니면 이게 가져올 외교적인 파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저는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국방부가 결코 북한의 핵이나 미사일 능력을 실제 이상보다 낮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장 김영우 그런데 보면 여태까지 제가 이 현안보고 자료를 수없이 많이 받아 봤습니다마는 늘 문구가 똑같았어요. '성공으로 단정하기는 제한된다'라는 문구가 아주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지난번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이번에 쏜 미사일이 아주 정확하게 일본 본토는 조금 못 미쳐 가지고 300㎞ 바깥에, 물론 여전히 JADIZ 안에 떨어졌습니다. 이게 만약에 일본 본토에 떨어진다면 북한이 남아나겠어요? 그런데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렇게 정확하게 낙하지점에 떨어졌다는 것은 저는 엄청나게 정교한 기술이라고 봐요. 이것 벌써 한두 번도 아닙니다.

물론 이 탄두가 대기권 재진입에 성공했는지, 아닌지는 저희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모릅니다마는 이런 어떤 거리 또 고각발사 각도 이런 면에 있어서는 저는 굉장히 정말 높은 기술 수준이라는 것을,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도 국방위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그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현안보고 할 때마다 우리 국방부는 이 기술 수준, 성공으로 단정 짓기 어렵다라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답답증이 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장으로서.

○국방부장관 한민구 위원장님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제가 조금만 부연설명 드리면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이미 십수년 전에 무수단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어서 시험 없이 작전배치 했습니다. 열병식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다 위협으로 평가하고 우리가 대응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2, 3년 사이에 북한이 무수단을 9발을 쐈습니다. 그중에 8발이 다 중간에서 실패했습니다, 파괴되고. 그중에 1발만 제대로 날아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북한의 어떤 기술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국방부가 국회에 와서 보고드린 것은 지금 북한이 그런 단거리미사일은 다 작전적으로 성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수준이 됐다고 우리도 평가하고 있고, 다만 그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ICBM으로 가는 과정에서 IRBM도 만들어서 시험해 보고 또 ICBM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완성을 향해서 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위원장 김영우 예, 과정에 있는 것 아는데 SLBM도 보십시오. 그때 계속 실패했다, 실패했다 하면서 결국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가 당황했어요. 미사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실패했다, 9발 중에 8발 실패했다, 이러다가 1발…… 1%라도 아주 가능성이 있으면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고 장관께서도 대비한다고 오늘 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 김영우 그런 면에서 제가 오늘 조금 안도는 합니다마는 상황이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드 배치는 계속해서…… 발사대 2기가 있다고는 합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초기운용능력이라고 하잖아요. 완전운용능력이 되려면 한 포대가 다 배치가 되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 시기를 늦추는 것에 있어서도 국방부가 아무런 무슨 대응이나 목소리를 못 내고 있잖아요.

그것도 항명입니까? 국방부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사드 빨리 배치해야 됩니다, 대통령께 그것 얘기하는 게 그게 항명이에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런 측면이 아니고요.

○위원장 김영우 저는 상황이 이런데도 국방부가 너무 조용한 게 그게 굉장히 이상했어요. 정말 이상했습니다.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고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도 안 하고 그 많은 장성들 말이지요, 한마디 얘기도 못 하고……

아무튼 제가 느끼는 바가 좀 많습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싣고 김정은이 폭주족처럼 지금 달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안전운전 하겠

다고 지금 국민들 싣고 그냥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폭주족 피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상황 돌파를 하기 위해서 좀 묘안을 짜 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소신을 가지고…… 물론 장관께서 노력하신 것 제가 잘 압니다, 오랜 기간 봐 왔기에. 그런데 지금은 진짜 중요한 시기입니다. 중요한 시기예요. 그래서 더욱더 노력해 달라는, 국방부장관으로 계시는 동안 마지막 1분 1초까지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영우 이철희 간사님.

○이철희 위원 제가 듣자듣자 하니까 좀 과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질문 드려볼 테니까 분명하게 답변하시지요.

국방부나 장성들이 청와대 압력 받아서 할 말 못 하고 있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철희 위원 그런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면 공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제가 그 얘기에 공감한다는 답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이철희 위원 오해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것은…… 저는 그렇게 인식하는 것은 누구나 자유지만 국방부는 분명한 입장을 개진을 하셔야지요.

그리고 분명한 것은 국군통수권자는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이철희 위원 저는 그런 자세를 유지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는 야당 국회의원 할 때 대통령 말 듣지 말라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또 하나, 사드가 지금 예정대로 하면 이미 배치가 6기가 완료됐어야 되는 시점입니까, 아니면 계획대로 가더라도 지금 아직 안 되는 게 맞습니까?

○국방부장관 한민구 아직 배치될 시기는 아닙니다.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철희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획이 헝클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이 헝클어진 것은 없지요?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그래서 지금 사드는 6월 말까지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철희 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정치적으로 군이 중립을 지켜야지요. 그러나 저는 쓸데없이 자꾸 이렇게 뭔가 압력 받아서, 군이 눌려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이런 인상을 주는 것은…… 장관님께서 또 지난 정부 때 임명되신 장관님이시니까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사실관계를 분명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우 이철희 위원님의 의견도 제가 존중을 합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도 국민들은 늘 그 자리에 있고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국방부는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국방부장관 한민구 예.

○위원장 김영우 오늘 회의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서 많은 걱정과 우려를 하셨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하셔서 비상한 안보 경각심과 함께 빈틈없는 대북 군사 대비태세를 유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산회)

○출석 위원(11인)

경 대 수	김 영 우	김 중 로	김 진 표
백 승 주	서 영 교	이 정 현	이 종 명
이 철 희	정 진 석	진 영	

○청가 위원(2인)

김 병 기　　우 상 호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손 충 덕
전 문 위 원	박 철 규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방부

장 관	한 민 구
기 획 조 정 실 장	김 인 호
국방정책실장직무대리	장 경 수

합동참모본부

작 전 부 장	조 한 규
전력기획부장	박 인 호
전략정보부장	이 진 규

【보고사항】

○통지

국무위원후보자(국방부장관 송영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송부 요청에 대한 통지

2017. 7. 4. 의장으로부터 위 건에 대하여 대통령이 7월 10일까지 송부 요청했다는 통지가 있었음